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성탄 및 송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 구역 미사

24일 (일)	주일미사	6:30, 10:30, 12:00, 17:00(중고등부 미사) * 저녁7시 미사는 없습니다.
	성탄 밤미사	저녁 8시 ※ 대림실천표 봉헌
25일 (월)	성탄 대축일	10:30, 12:00, 19:00 (6:30 미사는 없습니다.)
31일 (일)	주일미사	6:30, 10:30, 12:00 *주일 저녁7시 미사는 없습니다.
	송년미사	저녁 8시
2024년 1/1(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06:30, 10:30, 19:00

일시	담당 구역	장소
1월 2일(화), 20:00	6구역	강당

● 청소 담당

12/24	12구역	12/31	13구역
-------	------	-------	------

• 12/24, 12/31에는 국수잔치가 없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12월 14일 ~ 20일)

교무금	8,095,000원
주일헌금	4,832,000원
자선주일 2차헌금	2,285,000원
어려운 이웃 돕기	일신형제회 40만원

김민석20만원 최순5만원 송명순5만원
심진보20만원 김종순5만원 이병현30만원
김조요10만원 이인화5만원 차경권10만원
정정숙20만원 김정배5만원 김순애5만원
이지현10만원 서만심6만원 서윤석10만원
박경순20만원

●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시 : 1월 5일(금), 저녁 미사 후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1월 6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제대한화회	1월 2일(화), 10:30	2교실
성모성심회	1월 6일(토), 17:30	강당

● 알림

- 오늘은 국군장병 및 수감자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12월 31일)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1월달 봉성체는 쉽니다.

오라토리오
후원
든솔신협 500만원 기부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2/24	이영민	조흥환	오성환	장익근	구민서
12/31	구민서	심재순	신종구	김덕영	손정주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2/24	최석준	이화봉	최창열	옥윤필	장인홍
12/31	김인기	박승환	김광수	김영배	옥윤필

화답송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57. 어떤 자원이 고갈된다면, 고귀한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결국 새로운 전쟁의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은 언제나 환경과 풍부한 민족 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누군가 핵무기와 생물학적 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면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화학전, 세균전, 생물전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에도 자연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공격 무기의 개발을 위한 실험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는 새로운 갈등을 예견하고 그러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데에 커다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경제 세력들은 이러한 노력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정치적인 계획에는 넓은 시각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급하고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정치인으로 기억될 뿐일 터인데 그 누가 권력을 잡으려 하겠습니까?

58. 일부 국가들에서는 환경 개선에 대한 긍정적 모범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염되었던 강을 정화하고 원시림을 복구하였습니다. 환경 개선 계획으로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들을 세우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생산과 대중교통 개선에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세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이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모든 한계에도 관대함과 연대와 배려에서 나오는 행동이 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59. 또한 자기만족과 경박한 무책임을 부추기는 거짓되거나 피상적인 생태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심각한 위기의 시기에 종종 그러하듯이, 우리는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유혹에 빠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염과 훼손에 관한 몇 가지 피상적 표징을 제외하고는 상황이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고 지구도 한동안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회피적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생활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방식을 유지하게 해 줍니다. 이는 악행들을 알아채고 인식하지 않으려 하고,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자기 파괴적인 악행들을 조장하는 길입니다.